

2021. 3. 2

‘21.2 월, 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산금리 소폭 상승

자본시장부 (3705-6150)

- [시장동향] 미 국채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시장 위험회피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, HY 매수의견이 유지되는 분위기
 -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미 국채금리(10년)가 장중 한때 1.6%까지 상승했으며 장단기금리차는 '14년 이후 최대로 확대
 - 미 국채금리(2월말, 전월말대비), 2년 0.12%(+2bp), 5년 0.70%(+31bp), 10년 1.40%(+34bp)
 - 지역 연은 총재들은 최근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팬더믹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므로 차입비용이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
 - 아시아 크레딧물 가산금리는 월간으로는 축소되었으나 미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2/25일 이후 HY 중심으로 평균 29bp 확대. 벤치마크 금리 상승으로 전반적인 조달비용은 상승
 - 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-12bp, HY -36bp 등
 - 수출입은행(Aa2/AA/AA-) 5년물(T+28bp, 2/3일)이 발행 후 소폭 확대된 T+34bp에서 거래
 - 미 경기회복이 강하고 국채금리 상방여력은 제한(10년, '21년말 1.5%)된 것으로 전망. 이에 따라 현 여건에서 HY 가산금리는 추가 축소를 예상(Goldman Sachs)
 - '21년 2월 2차 달러채(ex-japan) 발행은 \$355억, 미국 IG \$1,145억, 유럽 IG €1,164억
 - 2/4일 알리바바(A1/A+/A+)가 지속가능채권(20년물) 포함 4개 tranche로 총 \$50억을 조달하였으며, 6배 이상의 주문배수를 기록. 특히 SRI채권인 20년물 가산금리가 T+100bp로 10년물과 flat하게 발행

〈표 1〉 한국계 가산금리

	발행액	만기	'20년말	1/29일	2/26일
외평채'30	6.25	9/16/2030	32	24	22
외평채'48	5	9/20/2048	58	53	53
수출입은행'26	7	2/9/2026	-	28	34
산업은행'26	5	7/19/2026	-	36	34
석유공사'30	10	10/5/2030	68	55	60
국민은행'30(후순위)	10	11/4/2030	122	114	116

* 자료: KCIF 등. \$억, bp

〈표 2〉 2차 주요국 및 한국계 CDS

	'20년말	1/29일	2/26일
한국	22	25	22
일본	15	15	15
중국	28	32	29
	NIC	Books	IPG-FPG
US IG	9	2.1x	24.4
EUR IG	11	2.8x	18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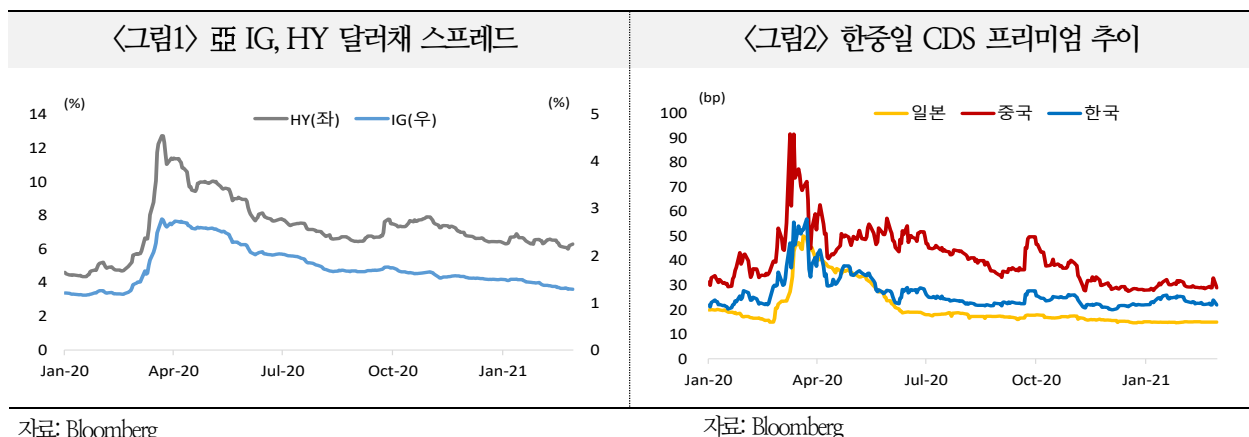
* 월평균



KCIF

■ [주요이슈]

- **미 \$1.9조 경기부양책** : 엘런 재무부장은 대규모 부양책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지출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
 - 하원은 \$1.9조 경기부양법안을 찬성 219, 반대 212로 통과. 동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를 거친후 표결 예상. \$1.7조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미 성장은 6.4%(기존 5.3%)로 전망(JP Morgan)
- **미 국채금리 FV(fair value)는?** : 최근 미 장기금리(10년)의 상승으로 펀더멘털(1.45% 내외로 추정)과의 괴리가 축소
 - 당분간 상승세가 주춤하겠지만 '21년 중반 연준의 완화적 기조가 악화하면서 연말 1.75%까지 상승 예상(BoA)
 - 미 장기금리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정상화 시기, 중립금리 등을 감안한 FV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. 다만 주식, 원자재 시장의 경기순환적 시그널을 반영한 FV(1.5~1.75%)와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(Citi)
 - \$1.9조 규모의 부양책(인프라 투자) 합의와 연준의 FAIT(평균물가목표) 방침 등을 가정할 경우 10년물 기준으로 15~20bp 상승 효과가 기대(Barclays)
 -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통과시 상방압력 예상, 연말 전망치 1.4% → 1.7%로 조정
- **ECB 기후변화대응 논의** : 2/18일 통화정책 전략 리뷰에서 향후 기후변화 위험을 공개하고 경제분석시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익명의 관계자 설명
 -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도 기후변화 위험을 강력하게 반영할 계획이며, 전략 수정시 'brown'(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며 감축을 위한 노력이 없는 기업) 증권은 중앙은행에 담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

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150 혹은 kimyk@kcif.or.kr; 홈페이지: www.kcif.or.kr